

# 최운열 회장 연임... AI 감사체계 구축·회계개혁 완성 추진

##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

지속가능성 공시·인증 분야 육성  
회계사 직역 경쟁력 강화도 초점  
저가수입 경쟁엔 “가격보다 품질”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향후 2년간 회계개혁 완성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회계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저가수입 경쟁과 감사품질 저하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와 AI 혁신 등 급변하는 환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최운열 현 회장이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문병무 선출부회장과 박근서 감사도 함께 연임했으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계기본법과



17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2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운열 현 회장은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허정윤 기자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여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며 “지난 2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회와 회계업계가 직면한 과제들을 더욱 속

도감 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2기는 회계제도 선진화와 함께 회계사의 직역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세무전문성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세무지원 조직과 교육체계를 회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청년·지방 회계사의 안정적인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한 개업지원센터 설치와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개업환경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회계사 수급과 직결된 적정 선별인원과 실무수습기관 미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I와 지속가능성 공시 분야는 최운열 2기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AI 감사환경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AI 기술 발전으로 창출되는 신규 업무영역을 적극 발굴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인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분야 역시 꾸준한 연구와 선제적 제도 정비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회계업계 현안으로 떠오른 저가수입 경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저가수입 경쟁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를 우리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하고 수입회사

수가 아닌 전문성으로 평가받으며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신뢰를 선택하는 수임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개혁의 목표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으며 그 성과는 오직 감사품질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지역공인회계사회와 지역투명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영리·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을 확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WCOA)도 최운열 2기의 주요 과제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회계산업의 역량과 회계개혁 성과를 국제 무대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회계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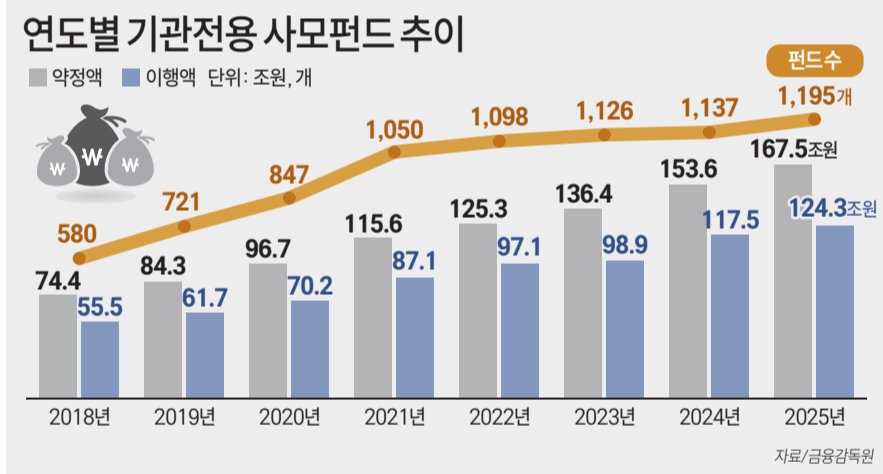
# PEF 시장 약정액 167조 돌파... 비경영참여형 투자 급증

금감원, 신규 약정액 27.8조  
비경영참여 투자 1년 새 4배 ↑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시장이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약정액 167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M&A 시장 둔화 영향으로 전통적인 경영참여형 투자는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과 메자닌 등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급증하면서 사모펀드 투자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PEF는 1195개로 전년 대비 58개(5.1%) 늘었다. 출자약정액은 167조5000억원으로 13조9000억원(9.0%) 증가했고, 실제 투자에 투입된 이행액도 124조3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5.8%) 늘었다.

특히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새로 설정된 PEF는 211개로 전년보다 22.0% 증가했고, 신규 출자약정액은 27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형 펀드 신설이 크게 늘면서 3000억원 이상 대형 PEF의 신규 약정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1% 증가했다.



반면 투자 행태는 달라졌다. 지난해 전체 투자집행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했지만,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투자는 23조7000억원으로 전년(24조1000억원) 대비 0.4조원 감소했다. 투자기업 수도 431개에서 343개로 줄었다.

대신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급성장했다. 지난해 비경영참여형 PEF 투자집행액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1조원 대비 340% 증가했다. 투자집행에 나선 펀드수 역시 26개에서 90개로 세 배 이상 늘었다.

투자 대상도 변화했다. 비경영참여형 투자 가운데 기업대출이 1조4000억원(3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메자닌 투자가 1조2000억원(27.6%)으로 뒤를 이었다. 두 투자 유형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M&A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통적인 지분 투자 대신 대출과 메자닌 구조를 활용한 중위험·중수익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

시장 자금은 대형 운용사로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됐다. 약정액 기준 대형 GP

(업무집행사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형 GP 비중은 27.0%로 낮아졌다. 대형 GP 운용 비중은 2022년 60.4%에서 지난해 68.7%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투자 대기 자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즉시 투자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는 드라이파우더(미집행 약정액)는 지난해 말 4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7% 증가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신중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투자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회수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투자회수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M&A와 IPO 등을 통한 최종 회수가 13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펀드 수와 약정액, 투자 여력이 모두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M&A 시장 둔화 영향으로 기업대출·메자닌 등 비경영참여형 투자가 확대되는 등 투자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 코스콤-GTN 차세대 글로벌 주문 인프라 구축 협약

코스콤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분사 비전룸에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전문기업 GTN(Global Trading Network)과 ‘글로벌 주문 허브(Global Order Hub)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주문 허브 구축 사업은 국내 금융기관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차세대 주문 전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증권사들은 기존 해외 주문 연결망 외에도 추가적인 주문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해외 시장 연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콤은 자본시장 IT 인프라 구축·운영 경험과 금융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GTN은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SBI홀딩스 등이 투자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기업으로, 다양한 국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주문 처리 환경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주문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준라 CEO는 “코스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연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글로벌 주문 허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코스콤과 GTN은 이번 협력을 단순한 주문 연결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투자 정보와 데이터 서비스를 연계한 금융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 AI 탑재한 올인원 금융앱 ‘신한 슈퍼SOL’

하이브리드 계좌·AI 에이전트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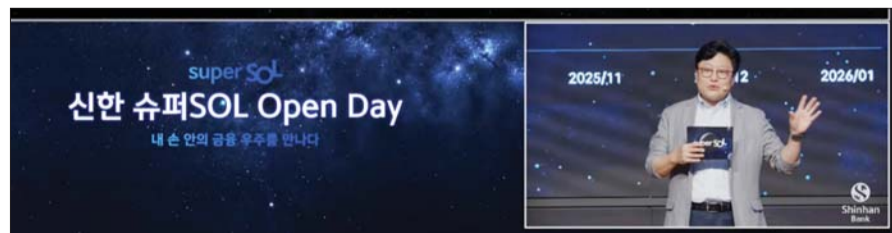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은 17일 새로운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처음 공개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은행·증권·카드·라이프 고객과 그룹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애플리케이션(앱) 공개 행사를 했다.

‘신한 슈퍼SOL’은 은행·증권·카드·보험 전 기능을 통합해 경계를 허문 올인원 금융 플랫폼이다. 동시에 은행 입출금과 주식 투자를 하나의 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계좌 ‘SOL 링크’도 선보

였다. 그동안 각 그룹사 주요 기능 외에 상세 업무를 실행하려면 개별 앱을 별도로 실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업무를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도 도입했다. 고객이 앱에서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금융상품 추천부터 가입, 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화로 끝낼 수 있는 업무가 50여가지에 달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어때?’라고 물으면 증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료가 빠지는 계좌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은행과 보험 업무를 차례



양진근 신한투자증권 본부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행된 ‘신한 슈퍼SOL Open Day’ 행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로 안내한다.

신한금융은 이날 은행 입출금과 주식 투자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계좌인 ‘신한 SOL LINK’도 함께 선보였다. 증권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이체 없이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곧바로 주식 매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식 매매

수수료도 국내 주식 0.01%, 해외 주식 0.07% 등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은행·카드·증권·보험을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